

글로벌 스탠다드 韓 '세계 5강', 'IEC 어워드' 9명 수상

홍승호 한양대 교수, 김영록 헥스파워시스템 연구소장 등 ... 녹색성장 분야 활동 두드러져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 중 하나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산업자동화, 태양광 등 8개 녹색성장 신산업 분야의 우리나라 표준전문가 9명을 국제표준화 공적자의 'IEC 1906 어워드(Award)'로 선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표준강국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

IEC는 지난 2006년부터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IEC 1906 어워드'를 제정하여 기술위원회별로 국제표준화활동에 기여도가 큰 국제표준 전문가에게 매년 시상을 하고 있다.

산업자동화통신(IEC TC 65) 분야의 홍승호 한양대학교 교수(55세)는 IS산선이 독자개발한 산업자동화용 통신기술인 R4PEnet 관련 규격 5종을 IEC 국제표준으로 채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태양광 에너지(IEC IC 82) 분야의 김영록 (주)헥스파워시스템 연구소장(42세)은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를 국산화하여 IEC에 신규표준으로 제안 채택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사고예방과 안전에 기여했다. 그 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환경표준화 분야에 이화초 영남대학교 교수, 전자부품 리아브러리의 설계자동화 분야에 이재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최상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팀장, 초고압송전기술의 무선상해 분야에 안희성 기초전력연구원 팀장,

LCD용 백라이트유닛 관련 디스플레이 분야에 조미령 한국조명연구원 팀장, 멤스재료 압축특성 관련 반도체 분야에 김재현 한국기계연구원 선임, 초전도체의 상온인장특성 분야에 신형섭 안동대학교 교수 등이 직업반 위원장 및 프로젝트 리더로 기여했음을 인정 받았다.

금번 IEC '1906 어워드' 수상자 총 124명 중 9명을 배출한 한국은 일본, 영국,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5위로 특히 산업자동화, 태양광, 환경, 무선장해 등 녹색성장 신산업 분야에서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두드러져 보인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한국은 5명을 배출해 영국,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 캐나다-덴마크-네덜란드 등과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산업자동화용 통신기술과 같이 독자 개발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은 향후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생존할 수 있게 하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이번 어워드 수상을 계기로 토종기술 표준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 임지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02-509-7295)

〈표〉 2011년 IEC 1906 어워드 수상자와 공적

수상자명	수상기관	공적분야	IEC-TC 담당	IEC 공적사항
홍승호 교수(55)	한양대 전자컴퓨터공학부	IC 65 (산업자동화 통신망)	한국대표	산업자동화용 통신기술(R4PEnet) 5종 제정추진 - 기존 통신보다 30배 빠름
김영록 소장(42)	헥스파워 시스템 기술연구소	TC 82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 리더	- 태양광발전 인버터 안전성 2중 진행 - 태양광인버터 표준화 주도
이화초 교수(56)	영남대 기계공학부	TC 111(환경 표준화)	프로젝트 리더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산정 방법 1종 제정 추진 - 폐제품 재활용 원경보호
이재호 교수(49)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TC 90(설계 자동화)	컨버너 & 프로젝트 리더	- 이중부품 매핑툴&교환방법 1종 제정 추진 - 전자부품리아브러리 WG 6 컨버너(2010) - JTC1/SC34/WG5 컨버너
최상미 팀장(49)	전자산업진흥회 산업표준센터	TC 90(설계 자동화)	국내 간사기관	- 이중부품 매핑툴&교환방법 1종 제정 기획추진
안희성 팀장(46)	기초전력 연구원 연구사업처	CSP(무선장해)	컨버너 & 프로젝트 리더	- 765 kV 초고압 송전기술 3종 개정 추진 완료 - EMC 작업반 컨버너(2007)
김재현 선임(40)	기계연 융합생산 기술연구부	TC 47(반도체 소자)	프로젝트 리더	- MEMS재료기동 압축시험 등 재료평가 3종 진행
조미령 팀장(42)	조명연 표준 기술부	IC 110 (평판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리더	- LCD-BLU의 광학적특성 진행 - 조명용 핵심광원 4종 표준화
신형섭 교수(52)	안동대 기계시스템학과	TC 90(초전도)	컨버너 & 프로젝트 리더	- 은-비스무스계 복합초전도체의 상온 인장시험 1종 제정 추진 - 상온인장 작업반 컨버너(2010)

걸프지역 표준화기구(GSO), 한국의 표준·적합성평가제도에 감동 아프리카 표준화기구에 이어 걸프지역 7개 GSO 회원국 대상 표준협력 시동

기술표준원은 GSO사무국과 회원국 대표와 만나 한국과 GSO 간 표준·적합성평가 인프라 증진을 위한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GSO 대표단은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에서 60년 만에 수출 규모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표준·적합성평가제도(시험, 검사, 교정, 인증제도) 구축과 운영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했다. 또한, GSO는 최근에 회원국의 표준·적합성평가제도를 통일시키면서 제품의 강제인증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장벽을 시중에 제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표준·적합성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전수하기에 적기이다.

바레인의 수피안 GSO 참가위원장, 오만의 사우드나세르 표준화기관장, 사우디 아라비아의 아메드 국제표준협력국장 등 5개국 10명의 GSO 참가단은 한국의 표준·적합성평가·법정계량제도 운영 현황과 수준에 깊은 감명을 받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력히 희망했으나, 이중 사우디는 한국의 법정계량 및 측정표수제도 전문가의 현지파견과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시험실 구축 사업은, 바레인은 표준교육시스템의 운영방법 자문을, 오만은 자국 표준화기관의 전반적인 표준화능력 향상지원방안 자문 등을 요청했다. 이에, 기술표

준원과 GSO는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표준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에 합의하고 양측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GSO 회원국은 우리나라의 석유외 천연가스 주요 공급원이자 해외 건설·플랜트사업의 주요 고객국가로서 기술표준원은 IT제품을 비롯한 한국제품의 수출장벽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표준·적합성평가제도 운영경험 전수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GSO 회원국은 2011년 7월 어린이 장난감에 대하여 안전인증(G마크) 획득을 의무화해 2012년부터 전기전자제품, 건축재료 등 강제인증 대상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참고로 한국은 지난해 GSO회원국에서 원유 66.7%, 천연가스 43%를 수입하고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의 58.9%를 수주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날 한-아프리카 표준협력노력으 통해 아프리카 표준화기구와의 표준협력을 본격 시작함에 이어, 걸프지역 국가도 표준협력을 확대하였으며 향후 남아 표준화기구와도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02-509-7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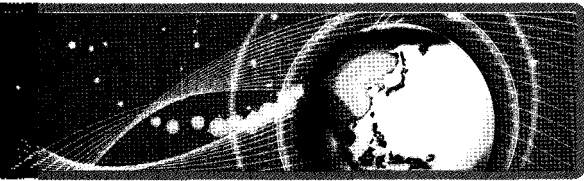
GSO 개요

성국 GCC 6개 국가(사우디 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와 예멘 등 걸프만 지역 7개국으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
- 목적: GCC 국가 간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자유무역 증진, 상품질제 품 추방을 통한 회원국의 경제보호,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을 통한 산업 지원 등.

- 전략: GCC 국가 간 자유무역지구, 관세동맹, 역내 공동시장, 경제 연합, 완전한 경제통합.
기능: 표준 및 강제기술기준 개발과 제정, 역내 무역증진, 관세동맹 강화, WTO 기술무역/농축수산물경역 지원 등.

(표) GSO 대표단 명단

바레인	Dr. Sulyan Abdulkadir Alirhayim	Director (Acting) / Standards & metrology section of GSO
오만	Mr. Saoud Nasser Al-Khusabli	Director general / Directorate of Standards of metrology under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사우디 아라비아	Mr. Ahmed A. Aleili	Director genera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Saudi Standard,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예멘	Mr. Waleed Abdulrahman Othman	Director general / Yemen standardization metrology & Quality control organization
바레인	Ms. Salwana Abdul Mohsin Abdulghani	Chief of standards development of information / Directorate of Standards of Metrology under Ministry of Industry of commerce
카타르	Mr. Mohammed Saoud Al-Mesallam	Quality Manager / Public laboratories and standardization under Ministry of environment
오만	Mr. Khalid Hamood Al-Hinai	Conformity Assessment Specialist / Directorate of Standards & Metrology
사우디 아라비아	Mr. Fahad Al Nassar	Director of Conformity Mark / Saudi Standard,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사우디 아라비아	Mr. Mohammed Abdullah Akkaban	Standards researcher / Standards & metrology section of GSO
사우디 아라비아	Mr. Motab S. Almezani	Conformity Assessment specialist GSO



부력 미달 구멍복과 유해물질 과다 함유 비치볼 리콜

유해물질 초과 수영조끼 등도 자발적 리콜 요청 ... 지난해보다 불합격률 3배 이상 증가

기술표준원은 지난 피서철 기간 동안 안전사고시 사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놀이용품과 여름용품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최소 부력이 미달된 스포츠용 구멍복 2개와 인체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인체접촉 가능성이 높은 공기 주입구와 상품 전반에 걸쳐 기준치 이상 검출된 비치볼 7개에 대하여 리콜조치를 했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판매 중지과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제품 위해성을 즉시 공표할 필요성이 제기돼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그 외 수영조끼 상표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제품 등 5개 제품은 제조사에 자발적인 리콜검토를 요청하였다.

금번에 조사한 물놀이용품과 여름용품 112개 제품 중 8개 제품(7.1%)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것은 작년 대비 불합격률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불합격률의 증가는 물놀이구에 대하여 인체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가소제 및 총 납 함유량 등) 함량제한이 안전기준에 신규로 반영되었고 함량기준을 초과한 부적합제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기술표준원은 금번 조사결과 부적합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유통 판매점이 가입하고 있는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정보를 전송하여 전국 1만8,000개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한다.

☎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조사과(02-509-7250, 7253)

불법 '비비탄총'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정부 합동 점검·단속

지경부, 행안부, 경찰청 등 ... KC마크 없는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이 없는 제품 등

정부는 지난 방학 기간 동안 비비탄총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단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번 합동단속반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경찰청, 지자체, 인증기관(KCL, HIT), 한국제품안전협회, 한국소비자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비비탄총은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위해요소가 매우 높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었고 미국이나 일본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탄환의 세기에 따라 어린이용(8세~14세미만), 청소년용(14세~20세미만), 성인용(20세이상)으로 구분하여, 사용연령에 맞지 않게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2007년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사고 건수(283건)는 장난감 무기류 안전사고의 73% 이상에 해당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비비탄총은 8세 이상이 사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각 가정

에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합동 단속은 불법·불량 비비탄총을 근절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KC마크가 없는 불법제품, 사용상 주의사항과 경고표시가 없는 제품, 연령위반 판매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먼저 7월 13일부터 26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1차 단속을 실시하고,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2차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비비탄총에 대한 어린이 사용상 주의사항을 알리는 홍보용 부채를 배포하고, 사용연령을 지켜서 사용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연령 위반 판매에 대한 제보는 한국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www.ksafety.kr)에서 접수한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비비탄총에 의한 위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비비탄제품의 연질화, 보안경 착용 강화, 사용연령 식별가능 표시, 발사 안전장치 개발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조사과(02-509-7251)